

## 젊은 연구원 12명... 백신개발에 총력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컴퓨터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개발을 위해 95년 서초동에서 13명의 연구원으로 출범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스스로 개발한 백신을 무료로 배포, 화제를 모았던 젊은 의사 안철수가 세운 이 연구소는 문을 연지 1년도 안되어 「V3플러스」 등 3개의 제품을 내놓았다.



▲ 미국가기전 안철수박사의 모습.

### 백신 무료배포한 괴짜의사

국내 컴퓨터바이러스를 혼자서 퇴치해 온 젊은 의사 안철수(安哲秀). 안박사는 88년부터 국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컴퓨터를 두드리는 사람이다. 안박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국내 컴퓨터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인은 다시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지만 백신을 계속해서 연구할 조직을 원했기 때문에 안

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초동 한판빌딩에 자리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소장 안철수, 이하 안 연구소). CF출연으로 이미 너무 유명해져버린 안철수박사. 어느 순간 컴퓨터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바이러스를 개발, 이것을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계산속이 어두운 인간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지만 서울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의대 조교까지 지낸 의학도라는 사실이 상식으로 통할 정도로 유명해진 안박사의 안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어찌면 너무도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50평 남짓한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구하고 있는 안연구소에 안박사는 없었다. 작년 여름에 다시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다는 것이다. 예정 기간은 3년. 의대 공부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지치지도 않았는지 다시 공부하기 위하여 낯선 땅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안박사는 컴퓨터와 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기생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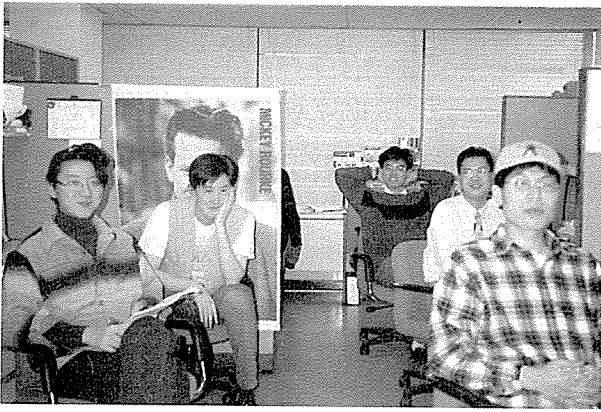
### 대표 안박사는 미국 유학 떠나

그러나 이 연구소에는 안박사뿐 아니라 13명의 직원중 학생이 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각종 컴퓨터관련 월간지에서 '컴퓨터인물 1위' 이고 하이텔선정 '정보문화인물' 이거나 주간 시사저널지가 선정한 '한국의 30대 뉴리더' 로 뽑힌 안박사를 존경한 나머지 그와 뜻을 같이 해 보고자 온 사람도 있고, 또는 하이텔에 올려진 구인광고를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다.

평균연령이 안박사와 몇몇 실장을 포함해도 20대 중반이 넘지않는 젊은 그들이라서 그런지 연구개발실 벽면에는 미국의 유명한 섹시 배우인 미키루크의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는가 하면 K모자를 눌러쓴 연구원, 앞머리를 길러 무슨 록그룹 리더보컬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연구원도 있었지만 이들은 저마다의 소신과 꿈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국민에게 꼭 필요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에 여념이 없었다.

컴퓨터프로그래머이자 연구원인 이들이 연구소에 나와 처음 하는 일은 밤새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들을 검토하는 일이다. 그중에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하루 안에 퇴치가 가능한 바이러스에서부터 여러 주가 걸려야만 해결되는 바이러스까지 다양하지만 때론 플러그가 빠진줄도 모르고 파일이 실행되지 않으면 무조건 바이러스가 침투된 줄 알고 문의해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런 문의는 주로 13일의 금요일에 작동하는 '에루살렘바이러스' 나 3월6일에 작동하는 '미켈란젤로바이러스' 혹은 크리스마스 때에만 작동하는 '크리스마스



▲ 국내 컴퓨터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무서운 신세대 직원들.

인사 바이러스'가 있는 날에 쇠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잘못 인식한데서 오는게 많다고 한다.

평소 기계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안박사는 88년 어느날 디스켓에서 기계어로 작성돼 있는 브레인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이 바이러스를 직접 분석, 그 정체를 밝혀려고 무턱대고 잡지사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내용은 브레인 바이러스분석이 끝나 그것을 치료할 백신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잡지에 실을 수 있느냐 것이었다. 잡지사의 대답은 오케이였고 그때부터 컴퓨터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프로그램의 정식명칭이 백신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튼 88년부터 95년 안연구소가 발족하기 전까지 백신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서비스되었고 안박사는 국내 컴퓨터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안박사는 모든 명예를 뒤로 한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다시 누군가가 '백신'을 계속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안연구소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 「V3플러스」 등 백신 3종 개발

안박사와 「한글과 컴퓨터사」 합작으로 설립된 안연구소. 문을 연지 1년안에

안연구소는 3개의 제품을 내놓았다. 첫 작품은 「V3플러스」로 국내에서 발견된 국내바이러스나 국외 바이러스 등 거의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색, 예방,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뒤를 이어 내놓은 것이 「프로도스버전」.

이것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도입하고 한글이 내장되어 있는 장점 외에 기능면에서도 감염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외국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해서 네트워크드라이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특히 기업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 한다.

또 하나가 윈도 버전으로 프로도스버전과 기능은 같지만 윈도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품이 1.0버전인데 요즘은 1.5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안연구소는 설립후 최근까지 백신(V3)을 수시 업데이트해 통신망에 무료로 업로드했고 거의 모든 백신을 퇴치할 수 있는 V3플러스를 세어웨어했다.

### 컴퓨터 피해대책 전화 상담

그리고 안연구소는 전문 상담요원을 통해 바이러스 제작 유포와 같은 컴퓨터 범죄와 관련, 사용자 문의에 대한 답변 및 바이러스 피해 상담을 각기 통신 포럼(goahn)과 전화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연구소

차원에서 대비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백신을 유상으로 보급하는데 있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안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자금조달은 개인 사용자가 아닌 정부, 기업 등 단체 구입이나 업체 번들을 통해 모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지금 세어웨어로 받고 있는 금액은 패키지 제작 및 사용자 지원 등에 쓰여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한다. 안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능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국내 컴퓨터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제품의 유료화에 대해 이런 지적을 받을 때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한다.

정보네트워크시대의 컴퓨터관련 범죄 증가에 대비한 신속한 보안 솔루션 제공과 계도활동을 통해 컴퓨터범죄의 예방근절을 도모하고 대 국민 정보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정보이용 마인드 구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연구소.

컴퓨터바이러스가 병원체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백신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한 안연구소도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어내야 하고 소위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산성이 없는 곳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안연구소 연구원들은 안연구소가 백신연구소가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